

# 가족구조와 부모불화가 청소년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명 숙 김 영 미

한국청소년개발원 Rochester University

본 연구는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내 사회환경적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서울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사회복지단체의 후원을 받는 저소득계층 가정출신의 9-19세 남아 청소년 247명을 대상으로 가정결손과 부모불화의 영향정도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양친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은 '전통적 가정', 그 외의 가족형태는 모두 '비전통적 가정'으로 분류하여 가족구조양상에 따른 청소년의 부적응정도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부모불화 지각' 정도에 관련한 부적응정도도 측정하였다. 부적응의 지표로는 정서적 측면에서 우울, 불안 정도를 측정하고 행동적 측면에서 비행행동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이들간의 매개변인으로서 부모의 감독, 자녀의 학교성적 등을 포함하였다. 중다회귀 분석결과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서 가족구조양상보다는 부모불화 정도가 더 높은 예언력을 보였다. 즉, 가정의 구조적 결손 자체보다는 부모불화로 인한 적대적 가정분위기가 가정의 기능적 결손을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우울과 불안, 비행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결손의 영향이 약한 것은 저소득계층 가정에서 가정결손 이전에 상존해 있던 극심한 불안정요소(부모불화, 가정폭력, 과한 음주, 도박 등)가 가족해체로 인해 제거됨으로써 아동에게는 오히려 '부적 강화'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구조 및 부모불화 변인이 불안/우울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예언하나, 비행행동에 대해서는 예언력이 낮은 이유는 정상청소년집단에서 비행행동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생긴 분포의 편향성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 사회문화적 배경

6·25동란후에 급속히 진행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한국여성들의 취업 및 취학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성들의 교육수준 및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고 여성해방운동도 더욱 가속화되었다. 가족구조도 대가족제에서 핵가족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혼 등으로 인한 가

정결손 또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독립과 비례하여 근래 10년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혼율은 더욱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혼율의 산출방법에 있어 세계적 추세는 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수의 비율을 이혼율로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1976-1983년 사이에 미국의 공식적 이혼율은 4.9

\* 본 논문은 한국심리학회 1993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에 수록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5.0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76년의 0.74에서 1983년의 1.46으로 10년내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태영, 1987).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혼율의 산출대상이 되는 이혼은 협의 또는 재판으로 이혼하여 이혼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정되므로 공식적 이혼을 통계에 사실혼해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해소까지 이혼율에 포함시키면 가정파탄의 실수는 공식 통계보다 많을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에 사실혼해소를 포함한 가정파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산층 가정은 대체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혼과 이혼을 성사시키는데 반해, 저소득층 가정은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가정 중에는 사실혼이 해소되어 실제로 가정결손이 발생했으나 법적으로는 결혼 또는 이혼신고가 안되어 있어 공식적인 이혼율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가정의 공식적 이혼율은 서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예컨대, 1985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가정 중 26%(8백 여만 가구)가 편부모가정이며, 편부모가정에 있는 청소년 중 89%가 모친보호하에 있다. 게다가, 이혼한 후 재혼한 가정까지 '비전통적 가정'으로 포함한다면 미국 아동중 3분의 1 이상이 가정결손을 경험하였다는 것이다(Hanson, 1988).

한국가정의 이혼율이 비교적 낮은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 남녀의 성차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불균형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며, 이혼가정에 대한 강한 사회적 낙인과 자녀교육에 대한 염려도 이혼을 억제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시말해, 한국가정의 낮은 이혼율은 경제사회적 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식구조내에 이혼에 대한 억제적 요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사회에 비해 이혼에 다다르기까지 겪는 갈등의 역치(threshold)가 더 높을 것이므로 이혼가정에서는 이혼에 이르기 전까지 심각한 가정불화를 경험하였을 것이고, 이혼후에도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더 많은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할 것으로 추측된다. 1978-1986년 동안 가정법원의 이혼심판사건 당사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을 개관해보면, 연령면에서는 30-40대가 가장 많고 교육수준면에서는 중졸이하가 50%를 차지하며 직업면에서는 남녀 모두 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파탄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이 전체의 60%를 차지하였다(이태영, 1987). 이상의 계층적 특성에서 시사하는 것은 저학력과 빈곤에 시달리는 하류계층 가정에서 안고 있는 부부불화, 적개심, 가정폭력, 무단가출, 실직, 교도소수감, 만성질환, 약물중독 등이 복합적으로 가정파탄에 이르게 하는 위험요소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열악한 가족사회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 이론적 배경

발달심리학의 주요 이론들은 전통적으로 계열적 발달단계간의 종단적 관계를 강조해 왔다. 아동의 인지발달에 관하여는 Piaget이론, 성격발달에 관하여는 Freud이론, 사회화에 관하여는 Erikson이론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발달생태학적 관점(Bronfenbrenner)에서 발달에 대한 아동주변의 상호연관적 관계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특정의 사회적 관계-예컨대, 부부관계-가 다른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가정하면서 맥락내 인간발달(development-in-context)이라는 상위체계에 얹혀 있는 하위체계들간 상호관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Dunn, 1988). 특히, Bronfenbrenner(1986)는 아동에 미치는 외부 영향의 근원에 기초해서 아동이 발달하고 기능하고 있는 하위체계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

조하였다.

가족체계내 사회적 관계의 질과 아동의 기능에 관한 연구는 아동기 부적응, 특히 비행과 관련해서 많이 수행되어 왔다. 부모-아동 2인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왔지만,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등과 같은 하위체계간의 연결에 관한 연구는 이제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Loeber와 Dishion(1983)은 비행연구에 관한 포괄적인 개관에서, 청소년기 비행에 대한 최선의 예언변인들은 대개 가족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비행을 예언하는 가족변인은 부모역할 수행의 실패와 열악한 가족생태환경과 관련된 것들로서, 구체적으로는 자녀감독 및 훈련의 부재, 가족기능의 저하, 가족성원의 전과, 부모의 정신병력, 과대가족, 부부불화 등을 들 수 있다(Kazdin, 1987; Loeber, 1982). 반면에 가족의 순기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탈적 또래집단의 영향을 상쇄하는 가족의 완충기능에 집중되어 왔다. 예를 들면, 반사회적 또래집단의 영향에 대한 “집 열쇠를 목에 낀 맞벌이가정 자녀(latchkey child)”의 비행취약성은 부모부재시에 아동에 대한 모친의 감독과 “원격조종(remote control)”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편모가정의 아동이 반사회적 또래집단의 영향에 취약한 것은 아동에 대한 모친의 허용성 때문이라고 한다(Steinberg, 1986, 1987).

가족사회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하위체계로서 부부관계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이혼연구 분야에서 많이 축적되어 왔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비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탐색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이혼가족, 미혼모가족, 정신적/신체적 장애가족 등이 주된 연구대상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가정은 아동의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은 결손된 가정내의 부정적 사회관계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Gottman & Fainsilber-Kat-

z, 1989; Parker & Asher, 1987). 가족의 사회적 관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두가지 주요 테마 중 하나는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한 가족구조의 결손이 아동의 부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구조 자체보다는 부부불화로 인한 적대적 가정분위기가 아동을 얼어붙게 한다는 입장이다.

종래의 가족학 연구들은 이혼, 미혼모 등 비전통적 가족구조 자체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는 부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 발달심리학 연구는 가족구조 자체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에 관한 요인들을 상세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부적응에 관련해서 가정결손 또는 부부불화 등 가정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연관된 다양한 매개변인을 찾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환경으로는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관계를 들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에 관련된 매개변인으로서 부모의 감독소홀(Steinberg, 1986; Dornbusch, Carlsmith, Bushwall, Ritter, Leiderman, Hastorf, & Gross, 1985; Wilson, 1980), 부모-자녀 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패턴(Steinberg, 1987), 부모 및 아동에게 있어 부적 정서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의 취약성(Howes & Markman, 1989; Gottman & Fainsilber-Katz, 1989; Maccoby, 1984; Olweus, 1980) 등을 들 수 있다. Dornbusch et al. (1985)의 연구를 예로 들면, 편모가정의 자녀들은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보다 일탈행위를 더 많이 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매개하는 가족환경 변인으로는 편모가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방적 의사소통 패턴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가족내에 모친 이외에 다른 성인이 함께 동거하고 있으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감소된다. 단, 다른 성인이 계부일 때는 이러한 완충적 기능이 없어진다(Steinberg, 1987).

다음으로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매개변인을 살펴보자. 배우자의 지지는 자녀양육에 대한 주요한 사회적 지지임이 입증되고 있다(Howes & Markman, 1989; 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Gottman & Fainsilber-Katz, 1989). 한 종단적 연구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의 결여가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부모-자녀관계의 악화에 가장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관한 가설적 설명으로서 배우자의 지지는 모친의 정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과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아동양육태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친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효과를 가진다(Dunn, 1988). 반면에, 적대적인 배우자관계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개입을 초래하며, 이를 매개하는 변인은 특히 아들에 대한 모친의 부정적 감정이라는 연구보고가 있다(Olweus, 1980).

자녀양육에 관한 부부간의 의견일치정도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Vaughn, Block, & Block, 1988). 아동이 3세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후 15년간 종단적으로 추적조사한 결과, 생의 초기의 가족환경이 아동의 성에 따라 후기발달의 상이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 3세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모간 의견일치가 여아의 15년후 사회적 기능과 상관이 있고, 남아의 경우는 15년후의 인지적 기능과 의미 있는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 또는 여아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의 성역할 사회화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 요인으로 부부관계만족도를 들 수 있다. Howes와 Markman(1989)은 아동의 특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는 반대로 부부관계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기 위하여 자녀출생전과 출생후 기간동안의 부부 만족도와 갈등을 추적조사하였다. 자녀출생전 부부관계의 질은 그후 자녀

의 유친행동과 자율성을 유의하게 예언하였고, 현재 모가 지각하는 부부관계 만족도 및 갈등은 아동의 현재의 안정성 및 사회성과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병리적 가족환경내에서 발생하는 부부관계의 악화나 아동기 부적응증상이 '부모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능력결여'라는 기저의 성격적 특성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소득계층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의 적응문제에 영향을 주는 가족내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탐색함에 있어서 가족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가족체계의 기본을 이루는 부부관계의 해체, 즉, 가정결손이 청소년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부부관계의 질, 즉, 부부불화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사회환경의 영향을 탐색함에 있어 가정결손 및 부부불화가 청소년자녀의 적응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덧붙여서, 이러한 영향을 매개하는 주요한 기저변인으로서 부모의 감독정도와 아동의 학업성적도 함께 포함함으로써 이들간의 가설적인 인과관계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관심을 구체화시킨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비전통적 가정 또는 부모간 불화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은 전통적 가정또는 화목한 가정의 청소년보다 더 많은 부적응문제를 가질 것이다. 또한 부모불화는 전통적 가정보다는 비전통적 가정에서 청소년의 부적응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비전통적 가정 또는 불화있는 가정에서는 전통적 가정이나 화목한 가정보다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감독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아동의 행동적 부적응증상(비행행동)은 부모의 감독소홀과도 연관되어 있다.

가설 3: 낮은 학업성적은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가정결손 또는 부모불화가 많을 때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 방 법

###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가정중에서 사회복지단체의 지원을 받는 9-19세 남녀 아동 및 청소년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남자는 138명, 여자는 109명이었다. 이들의 가족구조는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양친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을 '전통적 가정'(133세대)으로 하고, 그 이외의 가족형태를 '비전통적 가정'(114세대)으로 구분하였다. 비전통적 가정에는 편모가정, 편부가정, 계부/계모가정, 무부모가정 등이 각각 33, 13, 2, 66 세대씩 포함되었다.

### 연구절차

청소년용 설문지는 우편회수, 개별실시, 집단실시의 세가지 절차에 따라 1991년 6월-8월 동안에 작성케 하였다. '우편회수'방식에서는 한국BBS연맹 결연식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용 및 부모용 설문을 배포하여 집에서 응답케 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그 결과 배포한 200매의 설문지 중에서 25매(12.5%)만이 회수되었다. '개별실시'방식에서는 9명의 면접자들이 사회복지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단체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19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케 하였다. 본 조사에 협조한 사회복지단

체로서는 한국어린이보호회, 한국BBS연맹, 유성새마을학교 등이며 구로영세민입대아파트 주민도 일부 참여하였다. '집단실시'방식에서는 한국BBS연맹이 주최하는 여름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일시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33명의 청소년이 이에 응답하였다.

### 측정도구

**부모불화지각 척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불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urdek과 Berg(1987)가 개발한 '아동의 부모이혼지각척도'(Child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CBAPS)중 일부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이혼지각척도는 부모의 이혼에 대한 문제성 지각(problematic belief)을 측정하는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6개의 하위척도로서 '또래놀림과 회피', '버림받는 공포', '부친비난', '모친비난', '자기비난', '재결합희망' 등이 있다. 본래의 척도는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재결합희망'척도를 제외한 5개 하위척도는 굳이 이혼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부부갈등에 관한 아동의 지각을 묻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다섯개 척도를 합하여 '부모불화지각 척도'로 명명하고 이를 가정결손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제시되나 괄호안에 과거형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가족구조에 관계없이 현재 또는 과거에 지각한 부모의 불화내용을 회상하게 하였다. 각 질문에 대하여 '예', '아니오', '해당없음'의 3가지 반응선택지를 제시하였다. '해당없음'선택지는 본래의 척도에는 없던 것을 본 연구의 용도에 맞게 연구자가 각색한 것으로서, 비전통적 가정의 청소년 다수가 어린 시절에 부모와 헤어져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없음' 선택지를 추가하였다. 점수산출방식은 본래의

척도에서는 각 하위척도별로 문제성 지각을 시사하는 응답수를 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없음' 응답을 제외한 전체 응답수에 대한 문제성응답수의 비율을 산출하여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부모불화지각 척도에서의 점수는 0-1 사이의 비율값을 가지며 이 척도에서 큰 값은 부모불화에 대한 문제성 지각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비율점수 산출방식은 비전통적 가정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현재 또는 과거의 부모불화에 대한 아동의 지각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자의 고안이다. 부모불화지각척도의 신뢰도는 쌍별 상관에 기초한 Cronbach  $\alpha$ 값이 .55(평균은 .20, 표준편차는 .37)로서 비교적 안정된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아동의 시각에서 본 가정내 부부간 갈등정도를 측정함과 더불어,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지각한 부부간 갈등정도도 측정함으로써 아동의 부적응에 대한 상이한 관점간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각한 부부의 불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Locke와 Wallace(1959)가 개발한 '결혼적응척도-단축형'(Short-form Marital Adjustment Scale : SMAT)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결혼적응이란 "주어진 시간에 부부가 서로에게 조절해 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는 결혼생활 불만족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낮은 적응점수를 높은 수준의 부부불화 지표로 해석하였다. 설문을 작성한 청소년 중에서 58명만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설문응답이 가능하였다. 이 중에서 18명의 보호자는 단독으로 설문응답이 곤란한 지적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면접원의 면접에 의하여 기록하였으며, 나머지는 가정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 중 한 명이 작성한 것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혼적응척도의 Cronbach  $\alpha$ 는 .82로서, 이는 미국 가정을 대상으로 한 Locke와 Wallace

(1959)연구에서 얻은 Cronbach  $\alpha$ 값(.90)과 근사한 것으로 보아 이 척도의 문화보편적 적용을 시사해 준다.

**부적응척도** :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부적응지표로서 내현적인 심리적 부적응의 측면에서 불안/우울정도를 측정하였고 외현적인 행동적 부적응의 측면에서는 비행행동의 발생정도를 측정하였다. 불안/우울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는 5개 문항의 신체성 불안 척도(Gold & Mann, 1984), 5개 문항의 기질성 불안 척도-Spielberger, Gorsuch, & Lushene(1970)의 State-Trait Anxiety Interview 중 일부, 우울척도로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Radloff, 1977)중 5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15개 문항의 불안/우울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77이고 신체성 불안, 기질성 불안, 우울 하위척도 각각에 대한  $\alpha$ 는 .72, .46, .67로 나타났다. 이 지수(.77)는 미국의 시설수용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twood, Gold, & Taylor(1989)의 연구에서 동일한 불안/우울 척도를 사용해 보고한  $\alpha$ 값(.80)에 근사한 값이다.

비행행동의 발생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청소년비행연구(Gold & Mann, 1984; Atwood et al., 1989)에서 사용된 25개 비행행동-예컨대, 무단결석, 가출, 절도, 강도 등-에 대하여 지난 4개월 동안 피험자가 개입한 빈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25개 행동의 빈도점수를 합한 전체 비행지수의 Cronbach  $\alpha$ 는 .82로서 높은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 결 과

### 절차효과 검증

일반적으로, 피험자의 반응은 상이한 자료수집 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

구에서는 자료수집이 세가지 상이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설검증에 들어가기 전에 상이한 절차로 인한 오염 여부에 대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우편회수 및 집단실시 방식은 개별실시 방식보다 덜 통제된 상황에서 자료수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편회수 또는 집단실시 방식이 어떤 ‘상황적 소음’에 더 많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chi^2$  검증과 log-linear 모델을 적용하였다.  $\chi^2$  통계치는 관심대상인 절차변인과 임의로 선정한 10개의 탐지변인(probing variable)간의 이원빈도 분포에 기초해서 산출된다. 10개의 탐지변인으로는 설문절차에 영향을 덜 받는 아동의 연령, 성, 부모학력, 가족구조 등 4개 변인과, 설문절차에 비교적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적 질문인 ‘아동의 부모불화지각 척도’ 중에서 6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chi^2$  검증결과, 상이한 설문절차는 가족구조, 성, 부모학력, 부모불화척도 중 1개의 샘플 문항과 유의하게 연관되었다(표 1 참조). 추가로 분석한 log-linear 모델 검증에서는 빈도분석에 사용되었던 부모불화지각 척도의 6개 샘플 문항 중 4개 문항에 있어서 설문절차와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표 1. 절차변인과 탐지변인간의  $\chi^2$  통계치**

탐지변인	$\chi^2$	(df)
가족구조	8.74*	(2)
연령	5.31	(2)
성	15.68*	(2)
교육수준	15.60**	(2)
CBAPS 1 <sup>(1)</sup>	3.45	(2)
CBAPS 2	3.41	(2)
CBAPS 3	3.91	(2)
CBAPS 4	6.77*	(2)
CBAPS 5	.01	(2)
CBAPS 6	3.27	(2)

<sup>(1)</sup> 부모불화지각척도 중 6개의 샘플 문항

\* $p < .05$  \*\* $p < .01$

요약하면, 본 연구의 주요 측정도구인 부모불화 척도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이 가족구조, 연령, 성 등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상이한 설문절차와 무관하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자료수집상황의 통제가 비교적 덜 신뢰로운 ‘우편회수’ 및 ‘집단 실시’ 방식을 배제하고 ‘개별실시’에 의해 수집된 자료(190명)만을 통계검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 이원상관분석

주요 예언변인으로 사용될 가족구조, 부부불화, 부모감독, 학업성적 등과 부적응 준거변인인 불안/우울 및 비행행동을 포함하여, 관련변인들에 관한 가설검증에 적용할 중다회귀 모델을 세우기 전에 이들간의 이원상관관계 패턴을 고찰하였다(표 2 참조). 준거변인으로 사용되는 두가지 부적응 지표-불안/우울, 비행행동-사이에 약간의 상관( $r = .25$ )을 보임으로써, 양자의 부적응지표의 기저에는 공통의 ‘부적응적’ 잠재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예언변인과 준거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현적 부적응지표인 불안/우울 변인은 ‘아동의 부모불화지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r = .49$ ), 아동의 연령과도 다소의 상관이 있으나( $r = .32$ ), 가족구조나 학업성적, 부모감독 등과는 낮은 상관을 보인다( $r = .13, -.10, -.07$ ). 다시말해,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사이에 불화가 많을수록 아동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의 정도는 심하다. 외현적 부적응지표인 비행행동도 부모의 불화 정도 및 연령과 약간의 정적 상관을 가지며( $r = .25, r = .24$ ), 아동의 성과는 부적 상관을 갖는다( $r = -.26$ ). 그러나, 가정결손, 부모감독, 학업성적 등은 비행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예언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간의 잠재적인 인과적 연결을 추측해

해 볼 수 있다. 아동의 성과 연령은 다른 어느 예언변인들과도 유의한 상관이 없으며, 가족구조와 부모불화지각은 부모감독과 약간의 부적 상관을 이루고( $r = -.22, -.21$ ), 부모의 감독은 학업성과 정적 상관을 이루었다( $r = .25$ ). 다시말해, 비전통적 가정 및 부모불화가 심한 가정은 자녀들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며, 감독소홀은 다시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와 연관된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구조나 부모불화가 학업성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가족구조는 학업성과는 상관이 거의 없다.

불화 변인에 회귀시킨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구조 변인은 dummy variable로서 전통적 가정은 0, 비전통적 가정은 1의 코드를 부여하였다. 불안/우울에 대한 가족구조 및 부모불화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가족구조 변인의 경우  $\beta = .31$  ( $p < .05$ )이고, 부모불화의 경우는  $\beta = .51$  ( $p < .01$ )이다. 그러나, 이들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각각의 가족구조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전통적 가정과 비전통적 가정 모두에서 부모불화 변인이 불안/우울에 대해 유의한 예

표 2. 예언변인 및 준거변인간의 이원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불안/우울	-						
2. 비행행동	.25	-					
3. 연 령	.32	.24	-				
4. 성	.10	-.26	.02	-			
5. 가족구조	.13	-.03	.15	-.01	-		
6. 부모불화	.49	.25	.12	-.03	.09	-	
7. 부모감독	-.07	-.04	.06	-.04	-.22	-.21	-
8. 학업성적	-.10	-.03	.12	-.01	.03	-.15	.25

중다회귀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통제검증방법으로는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두가지 부적응지표인 불안/우울, 비행행동 각각에 대해 독립된 회귀모델을 적용하였다. 다음에는 가설 1, 2, 3의 주요 예언변인인 가정결손, 부모불화, 부모감독, 학업성적 등의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족사회환경의 영향 : 가족구조 대 부모불화 불안/우울 및 비행행동 각각을 가족구조, 부모

언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비행행동에 대하여는 부모불화 변인만이 유의한 주효과를 냈으나( $\beta = .24, p < .01$ ), 이는 비전통적 가정집단에는 해당되지 않고 전통적 가정집단에만 해당되는 결과이다(표 3 참조).

청소년자녀의 부적응에 대한 가족환경변인의 상대적 예언력을 비교해 보면, 부모불화 변인은 청소년의 불안/우울 및 비행 양상에 대하여 높은 예언력을 갖는데 비해, 가족구조 변인은 비행행동에 대하여 유의한 예언을 하지 못하며 불안/우울에 대하여만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불화의  $\beta$ 값은 불안/우울,



**표 3. 가족구조, 부모불화, 부모감독 및 학업성적의 영향**

준거변인	예언변인		수정 R <sup>2(3)</sup>	F값
	가족구조	부모불화		
불안/우울	.31*	.51**	.25	17.42(3 / 14)**
불안/우울 <sup>1)</sup>		.38*	.10	6.59(1 / 51)**
불안/우울 <sup>2)</sup>		.51**	.32	44.22(1 / 90)**
비행행동	.06	.24**	.04	3.25(3 / 145)*
비행행동 <sup>3)</sup>		.19	.03	2.90(1 / 56)
비행행동 <sup>4)</sup>		.24*	.06	6.61(1 / 89)*

  

준거변인	예언변인		수정 R <sup>2(3)</sup>	F값
	부모감독	가족구조		
불안/우울	-.10		.00	.93(1 / 81)
부모감독		-1.18*	.13	7.06(2 / 80)**
비행행동	-.04	-.28**	-.01	.16(1 / 81)

  

준거변인	예언변인							수정 R <sup>2(3)</sup>	F값
	학업 성적	가족 구조	부모 불화	구조 불화					
				구조 × 불화	구조 × 성적	불화 × 성적	구조 × 불화 × 성적		
불안/우울	.02	.34*	.50*	.12	-.31	-.07	.48*	.29	8.76(7 / 124)**
불안/우울 <sup>5)</sup>	-.45*							.12	3.34(1 / 16)
불안/우울 <sup>6)</sup>	.07							-.03	.16(1 / 24)
불안/우울 <sup>7)</sup>	0.8							-.01	.35(1 / 45)
불안/우울 <sup>8)</sup>	-.17							.02	1.71(1 / 39)
비행행동	.00	-.04	.16	.07	-.09	.05	.09	0.1	1.10(7 / 125)

\*p<.05 \*\*p<.01

- |                 |                 |
|-----------------|-----------------|
| 1) 비전통적 가족      | 2) 전통적 가족       |
| 3) 비전통적 가족      | 4) 전통적 가족       |
| 5) 불화적인 비전통적 가족 | 5) 불화많은 비전통적 가족 |
| 7) 불화적인 전통적 가족  | 8) 불화많은 전통적 가족  |

비행행동 각각에 대하여 .51( $p<.01$ ), .24( $p<.01$ )의 값을 가지나, 가족구조의  $\beta$ 값은 .31( $p<.05$ ), .06(n.s.)에 불과하다. 첨언하면, 부적응 지표로는 외현적 행동지표보다 내현적 심리지표가 가족환경변인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부모불화 및 가족구조 변인에 의

해 불안/우울 변인의 변량 25%가 설명되는데 비해, 비행행동은 변량의 4%만이 설명될 뿐이다. 즉, 가족환경과 관련된 예언변인으로는 가족구조보다 부모불화가 청소년자녀의 부적응을 예언하는데 더 효율적이며 부적응에 관한 준거지표로는 비행행동보다 불안/우울 등 심리적 지표가 더 효

울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설 1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부모불화가 많은 가정의 청소년은 불화가 적은 가정의 청소년보다 불안/우울 및 비행행동 등 부적응증상을 더 많이 보이고 가정결손이 있는 경우는 전통적 가정보다 청소년자녀의 불안/우울이 더 많으나, 비행행동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가설 1이 지지되는 결과가 나왔으나, 가설과 상반되는 부분은 부모불화의 영향이 비전통적 가정보다는 전통적 가정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이다.

#### 매개변인의 영향 : 부모감독 및 학업성적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및 아동의 학업성적이 매개변인으로서 아동의 부적응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기 위하여 가족구조 및 부모불화 변인과 함께 부모의 감독정도와 아동의 학업성적 등급을 중다회귀모델에 포함시켰다(표 4 참조). 부모의 감독정도는 아동의 가정밖 활동에 대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부모의 감독이 가족구조 및 부모불화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될 수는 있지만( $R^2=.13$ ,  $F=7.06$ ,  $p<.01$ ), 부모의 감독 그 자체는 아동의 불안/우울 및 비행행동을 예언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수용되는 결과를 보였다. 다시말해, 가정결손이 있고 부모간 불화가 심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부실해 지긴 하나, 부모의 감독부족이 아동의 불안/우울 및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불화 또는 가정결손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설 3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학업성적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학업성적은 아동 자신이 자기의 학급내 성적등급을 6점 서열척도상에 표시하게 한 것이다. 학업성적의 매개변인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가족구조와 부모불화 변인을 통제했을 때 학업성적은 불안/우울 및 비행행동

을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안/우울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삼자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왔다( $\beta=.48$ ,  $p<.05$ ). 삼원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불화가 적은 비전통적 가정에서만 아동의 학업성적이 아동의 불안/우울을 유의하게 예언할 수 있고( $\beta=.45$ ,  $p<.05$ ), 불화많은 비전통적 가정이나 불화와 관계없이 전통적 가정집단에 대해서는 예언력을 갖지 못한다. 비행행동에 대해서는 학업성적이 어느 집단에서도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부모불화에 대한 청소년자녀의 지각은 청소년에 대한 감독소홀을 유의하게 예언하고 청소년의 불안/우울 및 비행행동을 예언해 준다. 이에 비해,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가족구조는 부모의 감독소홀과 청소년자녀가 느끼는 불안/우울은 예언하나, 비행행동에 대한 예언력은 없다.

#### 보조적 분석 : 아동보고와 보호자보고

부모불화의 지각에 있어서 아동과 성인(부모 자신 또는 보호자)이 상이한 관점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설문에 응답한 가족 중에 29쌍의 자료만 아동과 보호자 간에 짝짓기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29쌍의 자료에만 의존해서 지각자의 관점에 따른 부모불화의 상대적 예언정도를 보조적으로 분석하였다(표 4 참조).

앞에서 기술한 아동의 응답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호자의 응답을 추가한 하위표본자료의 분석결과에서도 아동의 불안/우울을 예언하는데 부모불화에 대한 아동자신의 지각이 다른 변인의 통제여부와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회귀모델에서 가족구조 또는 부모불화에 대한 보호자의 지각정도를 통제하기 전이나 후에도 부모불화에 대한 아동의 지각정도가 유의하게 아동의 불안/우울 정도를 예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eta$ 의 범위가 .48에

표 4. 부모불화에 대한 아동의 지각 및 보호자의 지각 효과

준거변인	예언변인					수정 R <sup>2(3)</sup>	F 값
	보호자 지각	가족 구조	아동 지각	구조× 아동지각	구조× 보호자지각		
불안/우울		.48				.02	1.7(1/28)
불안/우울	-.13		.53*			.23	5.2(2/27)*
불안/우울	-.18	.39	.48*			.24	4.0(3/26)*
불안/우울			.57**			.25	10.6(1/28)**
불안/우울		.36	.55**			.25	6.0(2/27)**
불안/우울		.38	.10	.70*		.33	5.7(3/26)+
불안/우울	-.52*					.08	3.6(1/28)+
불안/우울	-.55*	.52				.12	3.0(2/27)*
불안/우울	.38	.57*			-1.30*	.24	4.0(3/26)**
불안/우울 <sup>1)</sup>			.79**				13.3(1/13)
불안/우울 <sup>2)</sup>			.09				.1(1/13)
불안/우울 <sup>3)</sup>	-.91**					.27	7.6(1/13)*
불안/우울 <sup>4)</sup>	.38					-.01	.9(1/13)
비행행동		.06				-.03	.0(1/28)
비행행동	.04		.28 <sup>(*)</sup>			.07	2.0(2/27)
비행행동	.04	.00	.28 <sup>(*)</sup>			.03	1.3(3/26)
비행행동			.26 <sup>(*)</sup>			.10	4.1(1/28)*
비행행동		.00	.37			.06	2.0(2/27)
비행행동		.00		-.16		.0	1.4(3/26)
비행행동	-.17					-.0	.7(1/28)
비행행동	-.17	.07				-.04	.4(2/27)
비행행동	-.01	.08			-.22	-.07	.3(3/26)

+ $p < .1$  \* $p < .05$  \*\* $p < .01$  (\*) $p > .05$

- 1) 비전통적 가족구조                      2) 전통적 가족구조
- 3) 비전통적 가족구조                      4) 전통적 가족구조

서 .57사이). 하지만, 모델 6-6의 상호작용효과항에서 보듯이, 아동의 불화지각이 전통적 가정에서는 불안/우울정도를 예언하지 못하고 비전통적 가정에서만 유의한 예언력이 있음을 보인다( $\beta = .79, p < .01$ ).

반면에, 불화에 대한 보호자의 지각 정도는 아동의 지각효과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만 아동의 불안/우울에 대해 유의한 예언력을 가진다. 다시말

해, 보호자의 불화지각정도는 가족구조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는 불안/우울 정도를 유의하게 예언하나, 가족구조와 함께 아동의 불화지각까지도 통제할 때는 보호자의 지각이 갖는 예언력이 상실된다. 이외에도, 보호자의 지각정도와 가족구조간 상호작용이 유의하다는 결과는( $\beta = -1.30, p < .05$ ) 보호자의 불화지각이 비전통적 가정의 아동의 불안/우울은 예언할 수 있으나( $\beta = -.91,$

$p < .01$ ), 전통적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모불화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보호자의 지각은 아동의 불안/우울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작용하나 비행행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부모의 불화에 대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지각이 갖는 예언력은 비전통적 가정의 아동의 불안/우울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적용되고 전통적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의 검증결과와 모순된다. 가설 1의 검증결과는 전통적 가정 및 비전통적 가정 양자 모두 아동의 불화지각이 불안/우울 정도를 유의하게 예언한다는 것이다. 동일 변인에 대한 상이한 분석결과는 가설 1의 표본크기(190사례)에 비해 보조적 분석에서 사용된 하위표본(29사례)이 매우 작기 때문에 발생한 표집의 불안정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논 의

심리학 연구들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조사연구자료에서 발생가능한 '상황적 소음'에 의한 오염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반응세트 효과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 피험자는 질문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현재의 기분이나 직전에 했던 반응과 유사한 방향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후광효과' 또는 '반응세트 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회귀분석결과는 '현재 불안/우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아동이 부모불화를 더 많이 보고하게 된다'는 반응세트효과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즉, 두가지 상이한 보고자 관점-아동 및 보호자-에서 보고된 부모불화 변인이 일관성있게 아동의 부적응을 예언한다는 결론에 비추어 볼 때, 부모불화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자신의 불안/우울과 같은 부적 정서에 채색되어 왜곡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부적응지표 선정 및 피험자 선정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체 가설검증의 공통된 결과는 행동적 부적응지표인 비행행동은 주요 예언변인인 가족구조, 부모불화, 부모감독, 학업성적 등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부적응지표인 불안/우울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비행행동이 유의하게 예언되지 못한 것은 준거변인 자체의 극단적인 비정상분포와 표본의 편파성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을 사료된다.

비정상 분포와 관련된 문제로서, 비행집단이 아닌 일반 청소년집단에서는 비행발생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분포가 원편(저빈도)으로 심하게 편향되어 있다. 25개 비행행동들의 발생빈도점수들의 합인 총 비행점수는 0에서 37점까지의 범위로 분포해 있다(평균은 4.2, 표준편차는 6.8). 이와 비교해서 불안/우울 지표는 정상분포로서 점수범위가 18에서 63사이에 분포해 있다(평균은 37, 표준편차는 9.43).

피험자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본 연구의 피험자집단은 사회복지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자기선택적 편파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하자면, 비록 복지단체들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학업성적 우수자 또는 선행사 위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학교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주로 의존하므로 학교교사들은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 중에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를 선정,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피험자집단은 한국의 저소득층 출신을 대표할 수 있는 '평균적' 청소년이라기 보다는 공부도 잘하고 비행행동도 적게 하는 '모범적' 청소년들로 제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추측은 피험자들의 학업성적 분포가 상향으로 편향적 분포를 보이는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지지된다. 그 예

로서, 본 연구의 피험자 중 92%의 학업성적이 학급에서 상위 60%이내에 속한다. 그러므로, 가족 환경 변인이 비행에 대해 낮은 예언력을 갖는 결과에 의존해서 가정결손이나 부모불화가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불안/우울 및 비행에 대하여 학업성적이 유의한 예언을 하지 못하는 결과도 피험자 표집의 문제와 상호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추후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가설 1에서의 예측과는 반대로, 가족구조보다 부모불화가 더 큰 예언력을 갖는다는 분석결과에 대해서 후속연구에서 보다 세밀한 대안적 분석을 요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구조변인은 본래 이혼가정과 전통적 가정의 대비를 위해 포함되었으나, 한국사회에서 이혼가정 당사자들이 가정문제를 밖으로 노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결손의 원인 및 유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명명한 '비전통적 가정'에는 이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모별기 유형이 다 포함되어 있다. 가정결손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가정결손'효과도 다양하기 때문에 가정결손 효과는 상대적으로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피험자의 사회계층적 특성과 관련해서 논의할 것은, 본 연구의 피험자집단은 전통적 가정이든, 비전통적 가정이든 경제적으로 극빈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빈곤과 관련된 물리적, 정서적 불안정, 부모의 다툼, 알콜중독, 가정폭력 등 부정적인 가족사회환경에서 성장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사회환경하에서 유지되어 오던 가정의 파탄은 아동 측에서 보면 이것이 역설적으로 일종의 '구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최악의 상태에서 살아왔다면 역기능적 가정의 해체는 '최소한 그보다 나은 다른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극도로 결핍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독특하게 지각하는 '결손'의 주관적 의미를 먼저 탐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중산층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결손'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그로 인한 아동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가정하지만, 극빈계층의 경우는 가족생태적 맥락 자체가 상이하므로 그 안에서 경험하는 인생사건이 갖는 주관적 의미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발달 연구에서 보다 더 맥락내 인간발달(development-in-context) 접근에 기초한 연구 시각이 요청된다.

## 참 고 문 헌

-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 II*. 서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 Atwood, R., Gold, M., Taylor, R. (1989). Two types of delinquents and their institutional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68-75.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 Research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 Cox, M. J., Owen, M. T., Lewis, J. M., & Henderson, V. K. (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 1015-1024.
- Dornbusch, S. M., Carlsmith, J. M., Bushwall, S. J., Ritter, P. L., Leiderman, H., Hastorf, A. H., & Gross, R. T. (1985). Single parents, extended households, and the control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326-341.
- Dunn, J. (1988). Relations among relationships. In S. W. Duck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pp. 193-209). NY : Wil-

- ey.
- Gold, M. & Mann, D. W. (1984). *Expelled to a friendlier place: A study of effective alternative school*.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 Gottman, J. M. & Fainsilber-Katz, L.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Hanson, S. M. H. (1988). Divorced fathers with custody. In P. Bronstein, & C. P. Cowen(Eds.), *Fatherhood today: Men's changing role in the family*(pp. 166-194). New York: Wiley.
- Howes, P., & Markman, H. J. (1989). Marital quality and child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60*, 1044-1051.
- Kazdin, A. E., Esveldt-Dawson, K., French, N. H., & Unis, A. S. (1987).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and relationship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ntisocial child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1), 76-85.
- Kurdek, L. A. & Berg, B. (1987). Children's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5), 712-718.
- Maccoby, E. E. (1984).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change. *Child Development, 55*, 317-328.
- Locke, H. J., Wallace, K. M. (1959). Short marital-adjustment and prediction tests: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Marriage and Family Living*, August.
- Loe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Loeber, R. & Dishion, T. J.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 68-99.
- Loeber, R., Dishion, T. J., & Patterson, G. R. (1984). Multiple gating: A multistage assessment procedure for identifying youths at risk for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1), 7-32.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su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660.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teinberg, L. D. (1986). Latchkey-key children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 ec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33-439.
- Steinberg, L. (1987). Single parents, stepparents, and the susceptibility of adolescents to antisocial peer pressure. *Child Development, 58*, 269-275.
- Steinberg, L. (1988). Reciprocal relation between parent-child distance and pubertal matu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122-128.

- Vaughn, B. E., Block, J. H., & Block, J. (1988). Parental agreement on child rearing during early childhood 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9*, 1020-1033.
- Wilson, H. (1980). Parental supervision : A neglected aspect of delinquency.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3), 203-235.

##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Marital Discord on Children's Maladjustment

Myung-Sook Lee      Young-Mi Kim

Korean Institute for      Rochester University  
Youth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s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which influence children's affective and behavioral adjustment from low-income families. The children are 247 boys and girls aged 9-19 years coming from social welfare famil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s major familial factors, the effects of family breakup and marital discord are compared. That is, the adverse influence of unconventional family vs. conflict-ridden family on their offspring's development is assessed. The unconventional family is one that at least one of the parents does not live with their children. Maladjustment is indicated by the degree of depression, anxiety, and delinquent behaviors. Parental supervision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re measured as mediators. As a result, marital discord rather than family structure is a more effective predictor for children's maladjustment. Malevolent marital relationship associates more strongly with children's depression, anxiety, and delinquency than family breakup does. However, it is suggested from the unexpected weak association of family breakup in low-income families that family breakup in extremely low-class could work as a negative reinforcer to family members because the existent adverse factors within family, such as marital conflict, family violence, drug abuse, alcoholism, et al., are got rid of with family breakup. In case of delinquency criterion, low predictability of discord and family breakup on delinquency is a presumed result supposed by the left-side skewedness of the distribution of delinquent behaviors.